

중간 삶의 행복



부산가톨릭대학교 백 종 민

요즘 평균수명이 길어져 80세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화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시대의 사람보다 2배 정도 오래 살고 있다. 평균수명이란 출생 시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의 의미이며, 일부사람들이 기대수명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40세인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는 것은 기대수명이며,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의미이다. 즉 2007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평균수명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중간’,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흔히’, ‘통상’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통계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학에서 보면 어느 집단이나 사상(事象, event)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산술 평균)의 의미이다. 비슷한 의미로 중위수, 최빈수 등도 있다. (물론 산업보건에서의 측정값들은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평균의 의미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수치이거나 개념이 될 수 있다.

평균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치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간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고를 보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학에서는 범위, 분산, 표준편차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우리가 사는 생활 주변에는 감각적으로 상당부분 통계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게 내포하고 있는 사고가 표준편차와 확률의 개념일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표준편차

는 측정치와 평균치의 차이를 제공하여 더한 뒤 더한 값을 표본수보다 1이 적은 수로 나누게 되면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으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분산을 제공하여 평방근을 구한 것이 표준편차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내에 68.3%, 2 표준편차 내에는 95%, 3 표준편차 내에는 99.7%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남과 대비(對比)하며 성장하였고 지금도 비교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을 것이다. 옆집 아이보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다른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강요받고, 남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고, 좀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해외연수를 떠나고, 소위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액과외 시키고, 강북보다는 강남에 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항 이래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의 한 국가였다. 아마도 3 표준편차 내에 들어가는 최빈국이었다. 그 와중에 1950년 6.25 전쟁을 일어나 국가는 더욱 황폐해졌다. 상당수 국민이 말 그대로 헐벗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국가였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모두가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빈곤을 크게 느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생활이 어려운 것이 평균이니까) 비교의 대상도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물론 그 과정에 환경파괴, 직업병 발생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된다. 국민 1인당 2만불 시대에서, 50~60년대보다 평균수입이 늘어나 절대적 빈곤은 적지만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에서 양수 쪽으로 멀리 떨어져(남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므로)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원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평균 범위의 삶을 살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통의, 평균적인, 보편적인, 남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중간으로도 살기힘든 것 같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통계개념은 확률일 것이다. 확률은 어떤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낸다. 그 사상이 일어나기 쉬울수록 1에 가까워지고 일어나기 힘들수록 0에 가까워진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은 0의 확률을 갖고,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은 1의 확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직장, 자격취득 등 무수히 많은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에 앞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맞출 확률을 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소위 하루밤샘, 당일치기, 더 나가서는 초치기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정답을 맞출까? 요즘 각종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또한 확률적 사고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원래는 투자인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것들이, 투자보다 투기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로또, 경마, 경륜, 바다 이야기 등의 도박과 같은 투기가 사회에 독버섯처럼 커지고 있다. 투기는 당첨확률과 낙첨될 확률이 있을 것이다. 1에서 당첨될 확률을 빼면 낙첨 확률이 나온다. 확률이 매우 적지만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수 십 만 명이 작은 액수지만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건 모순이다. 복권도 사업인데 망할 사업을 할 사람이 있을까? 0.5를 넘는 확률은 시도할 만하지만,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시도는 시험을 앞두고 당일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산업보건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므로 잘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바로 지적이나 핀잔을 받는 분야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중간하기가(평균적 생활, 1 표준 편차 내의 생활)도 매우 어렵지만 남들 사는 수명을 살고, 남만큼 생활하고, 남만큼 건강하고, 남만큼 노력하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나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당일치기식의 요행을 바라지 않는 각고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